

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,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 및 보수 양당 요구안 전달 산재사망 노동자 영정 들고 헛 상여 행진

- 일시 : 2022.3.03(목) 14:00
- 장소: 서울 경총 앞 (약식 집회 후 국민의 힘, 더불어민주당 앞까지 행진)
- 주최: 민주노총

1. 취지

- 2022년 사고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94명이 넘고, 급성중독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나,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75%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.
- 경총,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, 3월2일 건설안전특별법을 호도하는 조사결과 발표로 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- 광주에서 노동자, 시민이 죽어나갔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처벌이나 영업정지는커녕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,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2개월 만에 7명이 죽었습니다. 경기, 인천, 강원, 제주, 경남, 충남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<노동>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대선후보 공약에는 여천NCC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국가산단 안전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, 참사의 빈소와 장례식장은 대선후보의 유세 코스쯤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하고, 영정과 상여 행진을 진행하여 중대재해 대책없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하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
-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.

2. 진행순서

- 경총 앞 집회
 - 발언 : 민주노총 임원, 화섬노조YNCC지회,전국플랜트 건설노조
- 행진
 - 299개 산재사망 노동자 영정, 헛 상여 행진
 - 경총- 공덕역- 국민의 당사- 더불어 민주당사

- 국민의 힘, 더불어 민주당 요구안 전달
- 국민의 힘 : 건설산업연맹 위원장,
- 더불어 민주당 앞 : 화섬노조 위원장
- 상징의식 : 안전화에 국화 놓기, 요구안 전달하기

3. 중심 요구

-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하는 경총을 규탄한다.
-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하는 경총을 규탄한다
- 재벌 공간, 대표이사 사수에만 급급한 경총을 규탄한다.
-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.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하라
- 여천NCC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
- 국가 산단 안전 대책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하라
- 국가산단 안전대책 국가가 책임져라.
-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하라
- 노동안전 대책 없는 보수양당 후보 규탄한다.
-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!
- 죽지않고 일할 권리 국가가 보장하라